

Dave Mathewson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6, 요한계시록 2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계시록에 관한 Dr. Dave Mathewson의 강의입니다. 세션 6, 일곱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의 세부 사항을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나 저자가 교회의
상황과 관련하여 끌어낸 1장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특징에 이르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상황은 어땠나요? 무엇이 문제였나요, 문제였나요?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이긴다면
종말론적 약속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우리는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었을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 특히 4장부터 22장까지가 그들의
상황과 어떻게 관련이 있었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2장부터 17장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는 교회 중
하나이다. 칭찬과 정죄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첫 두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1장에서 그리스도가 묘사한 특징 중 하나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계시록이 주로
상징을 통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입에서 나오는 칼은 사실
구약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상징이며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분,
단순히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사람들.

이제 그리스도는 1장에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즉, 그리스도는 지금 버가모 교회에 주로 전사로서, 주로 심판할
자로 오십니다. 뛰어서 16절을 보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를 치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버가모의 메시지는 주로 부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의 묘사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회개를 거부할 경우 주로 심판의 관점에서 오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다소 힘들고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사실 13절에서 시작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다음에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 교회에게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탄의 왕좌가 무엇인지에 관해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제안은 이것이 버가모가 기념하는 주요 신 중 하나인 제우스의 제단에 대한 언급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눈에 띄는 그 제단은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나 예수께서 교회에 전하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요한의 마음 속에 있었으며, 사탄의 왕좌는 제우스의 제단에 대한 언급이거나 암시였을 것입니다.

아비멜렉 과 같은 다른 보좌나 다른 신전, 신에 대한 기념물, 버가모의 이와 유사한 것들에 대해 많은 다른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것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요한이 제우스의 제단과 같은 특정한 실체를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확신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오히려 요한이 어떤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사탄의 보좌는 그가 첫 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한 하나님의 보좌와 대조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보좌는 단순히 이곳이 사탄의 영역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곳은 그가 다스리는 자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읽을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도 4장부터 22장까지의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4장부터 22장은 요한이 2장과 3장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을 상징적으로 묵시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박해하러 오는 용, 사탄을 다시 소개합니다. 우리는 버가모 메시지의 2장에서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왕좌는 제우스나 다른 어떤 것과 너무 밀접하게 동일시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요한이 사탄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도시 버가모는 바로 이곳이 사탄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들은 다소 힘들고 적대적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와 칭찬은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충실한 증언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적어도 대체로 교회는 사탄이 보좌를 갖고 있고, 사탄이 통치하고, 사탄이 속일 수 있는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증거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실, 요한은 이 환경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위해 죽었다고 말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존이 우리에게 사망했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그랬는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특히 4장부터 22장까지 들어가면 핍박과 순교, 죽기까지의 증언과 증언이 공통된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요한은 안디바에게 일어난 일,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일의 전조라고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로마와 악한 세상 제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신실한 증인 사이의 충돌로 인해 그들의 간증과 증언을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교회를 칭찬한 것입니다. 사탄이 다스리고 보좌를 잡고 휘두르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신실한 증언을 해왔고, 그 증언을 위해 안디바라는 한 사람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칭찬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진단하시면서 비난으로 누그러지거나 부정적인 평가로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14절부터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제사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뜨리도록 가르쳤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 부도덕을 범함으로써입니다.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으니 회개하라.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일부 사람들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 전체가 충실한 증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요한이 교회를 비난하는 니골라당은 누구입니까? 먼저 발람입니다. 이것은 구약을 암시하는 저자의 또 다른 예이며 저자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몇 군데에서 할 일은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10일 시험의 예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머나에게 보낸 이전 메시지에서 요한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예를 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일종의 모델이나 연결로 사용합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이 구약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즉,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 가르침과 우상 숭배 등으로 유혹을 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같은 시대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유사한 유형의 거짓 가르침을 조장하는 특정 개인이나 그룹 또는 단체를 지칭하기 위해 구약의 인물과 칭호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민수기 22장과 24장 으로 돌아가면 발람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발람은 모압 왕이 이스라엘 나라에 저주를 선포하려고 요청한 이방인 선지자였습니다. 대신에 그는 축복을 선포합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 이방 민족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흥미롭게도, 민수기 31장에서 모세는 이것을 발람 자신에게 돌립니다. 당시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부도덕과 우상 숭배로 이끄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도덕과 거짓 가르침, 그리고 우상 숭배와 타협하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짓 가르침의 속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발람이 거짓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에 대한 모델이나 속담을 제공하기 때문에 발람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그룹이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현재 페르가몬 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제목이자 적절한 명칭입니다.

분명히 버가몬 교회는 이 발람이 구약에서 발람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를 우상 숭배와 성적 부도덕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중 하나는 이 발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버가몬 교회의 특정 인물인가? 발람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발람이 단지 그룹의 머리를 맡은 한 개인인지 아니면 주로 그룹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존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발람이 누구든 간에 그들은 로마의 상업, 경제, 예배 체계와 타협해도 괜찮다는 것을 교회에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과 타협하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고 이교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교회에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축제나 그런 것.

즉 그들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상 숭배와 음행과 부도덕에 빠지도록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개념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어떤 연속성을 암시합니다. 즉, 내 생각에 John은 단지 예시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신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도 똑같은 유혹을 받고,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과 우상 숭배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옛 백성과 새 백성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발람 외에 나열된 두 번째 그룹은 발람은 구약의 인물이고 두 번째 그룹은 니골라당이라고 불립니다.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이 발람이 대표하는 그룹이나 사람과 정확히 같은 그룹인가, 아니면 첫 번째 그룹과 다른 그룹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내 생각에는 이것이 비슷하든 다른 집단이든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이 집단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그들의 이교도 환경과 타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고 간음함으로써 교회를 로마제국의 이교 문화와 타협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상에게 고기를 먹는 것과 간음하는 것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가 제시됩니다.

우선, 특히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부터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비슷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노골적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러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다른 형제나 자매가 실제로 양심을 범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정죄하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마음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바울은 그들이 외국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상황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에 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요한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이 단순히 누군가의 개인 집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상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이 문맥에서 그들이 황제를 기리는 축제나 축제에 참여하거나 이 고기를 바친 이교 신들을 기리는 특정한 경우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즉, 나는 요한이 명백한 우상 숭배, 이교 신들에 대한 명백한 숭배에 가까운 상황을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요한이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무역 길드의 일부일

수 있으며, 무역 길드의 일부일 수도 있고 직업의 일부로 길드에 참여하고 신을 기리는 특정 축제와 축제에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비난하고 있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고기를 먹음으로써 드러나는 예배 행위일 것입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경고하신 간음은 어떠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육체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특히 일부 이교도 숭배와 관련하여 가능합니다. 그리스-로마 세계의 일부 상황에서는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성전 매춘부와 관련될 기회도 제공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John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아마도 더 명백하고 아마도 요한의 주요 요점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간음이나 부도덕을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이것 뒤에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람들은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을 따르는 것,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한이 육체적인 성적 부도덕과 간음을 범하는 의미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비록 그것이 암시될 수는 있지만, 주로 그는 구약의 배경과 관련하여 이것을 사용하여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들은 황제나 다른 이교 신들을 숭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충실하여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책의 뒷부분, 특히 19장과 2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양의 신부라는 주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는 그들이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다는 은유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요한의 반응은 그들이 회개하고, 중단하고, 교회가 교회 안의 이 가르침을 허용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살고 있는 이교도, 우상 숭배, 부도덕한 사회, 즉 사탄의 보좌가 있는 사회와 타협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곳.

오히려 그들은 충실한 증거를 유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두 구절에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이미지,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작용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전쟁하실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전체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은유입니다. 4장부터 22장까지, 특히 19장에서는 전투나 전쟁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종말론적인 축복이나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각 교회마다 이기고 정복하는 개념이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겼다는 것은 회개하고 타협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이교 로마 율법과 타협해도 괜찮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교사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과 사회.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회개하는 것이 교회가 이기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제시하시는 약속, 즉 그것이 극복될 경우의 종말론적인 미래의 축복이 흥미롭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에게 감추인 만나를 약속하셨습니다.

17절부터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이제 문제는 숨겨진 만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대부분은 요한계시록 맨 끝인 20장, 21장,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왕국, 그분의 통치, 그분의 새로운 창조와 관련된 축복은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에서 선택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적어도 한두 가지가 20장부터 22장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저자가 이긴 자에게 약속한 숨은 만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구약성경의 이해와 기억을 떠올려 보면 만나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세대와 연관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광야를 횡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것 중 하나는 그 백성을 부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거나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의 구약전서의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해 읽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숨겨진 만나에 대한 이 개념은 우리는 그 개념이 어디서 유래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저자가 숨겨진 만나를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도 모세 시대 이야기의 일부였던 발람 이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언급한 발람의 이야기는 더 넓은 이야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공급하신 만나를 회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만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만나가 미래의 종말론적 구원을 기대하는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상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유대인 작가들은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만나가 방주 안에 숨겨져 있었으며 메시아가 오실 때 그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은 일부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메시아가 오실 때 드러날 숨겨진 만나를 염두에 두고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 말을 마지막 때의 구원, 즉 하나님의 백성이 충실하면 참여하고 누리게 될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구원의 상징으로 다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마도 다른 문헌에서 마지막 때에 드러날 만나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된 것처럼 구약성서에서 공통된 이미지를 취했고 이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그가 요한복음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일을 말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약속.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 나중에 사용하게 될 또 다른 이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물리치고 그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때 끝이 납니다(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 따라서 숨겨진 만나에 대한 유대인의 이해에 배경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17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어떻습니까?

이어서 이르시되 오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만 줄 뿐 아니라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도 그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이제 문제는 이 흰 돌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숨겨진 만나처럼 요한계시록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특별히 흰 돌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한이 교회에 약속하는 축복에 대해 언급하는 20장부터 22장까지의 본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극복한 것. 그러면 이 흰 돌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2,000년의 거리로 인해 매우 어려워졌고 John이 의도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제안이 있었고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보고 싶지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예를 들어 흰 돌은 법원 시스템에서 무죄 판결, 무죄 판결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죄책감이 드는.

예를 들어 흰 돌은 특정 행사, 특히 연회에 입장하기 위한 패스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회에 들어가면 당신의 흰 돌은 회신이나 연회에 들어갈 때 보여주어야 했던 모든 것과 같을 것입니다. 셋째, 흰 돌을 부적에 달아 귀신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능한 제안도 있습니다. 이것은 흰 돌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 가지 주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까지 존이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John은 이러한 것 중 하나 또는 두 개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John은 종종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두고 보자. John은 이미지가 하나 이상의 의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존의 이미지는 단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지 않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John의 이미지는 하나 이상의 의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John은 하나 이상의 아이디어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John이 무죄 판결을 내릴 때 무엇을 언급했는지 정확히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고소인이라는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로워지고 무죄 판결을 받고 입증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입니다.

연회에 들어가는 길은 확실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양의 잔치에 들어갑니다. 귀신을 쫓는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또한 악마적 존재들의 영향력과 사탄이 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가능합니다.

이 텍스트에서도 그런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흰 돌은 그들의 천국적 종말론적 보상과 그들의 천국적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나와 흰 돌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동일한 것, 즉 종말론적 구원을 묘사하는 두 개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새 이름은 다시 말하지만, 저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새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름에 대한 개념은 실제로 구약성서에 우선합니다.

요한의 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인 이사야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John Ficus라는 작가의 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사야를 사용한 것이며 요한계시록의 예언적 선행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요한이 여러 본문에서 이사야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히 조사합니다. 따라서 새 이름은 실제로 이사야서의 두 군데에서 발견되는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62장에서요.

그리고 이 본문의 대부분은 미래, 곧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62장 2절에 보면, 열방이 주의 의를 보고 열왕이 다 주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서 65장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과 15절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새 창조의 맥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본문인 이사야서 65장의 두 구절 뒤에 있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5절에 보면, 너는 네 이름을 내가 택한 자들에게 저주로 남기리라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를 죽이시려니와 그 종들에게는 다른 이름을 주시리라 따라서 새로운 이름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John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는 단순히 구약성서의 본문을 언급하거나 암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창조에 대한 이사야의 기대는 버가모 교회를 위해 준비된 약속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이교도 세계와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승리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에게는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이 인내하라는 부르심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내하라는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타협하는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타협하는 사람들을 허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르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은 권고의 말씀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전투 장면을 잘못된 결말에 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읽을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를 거부한다면, 예수님은 칼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4-22장을 읽을 때 구체화되고 더욱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에 대한 묘사, 예를 들어 19장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백마를 타고 전쟁을 하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실한 증언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협의 유혹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들은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읽을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는지 아니면 회개를 거부하는지입니다.

2장에 나오는 다음 교회이자 요한계시록 2장에 언급된 마지막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이다. 2장 18-29절에 나오는 두아디라는 순환 경로의 다음 도시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마도 요한 자신도 이 교회들 가운데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 일곱 교회를 둘러싸는 자연의 길에 있는 다음 도시일 것이다. 두아디라는 상업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마도 일곱 도시 중 가장 중요하지 않은 도시였을 것입니다.

정치적, 상업적인 한. 그러나 2세기와 3세기에는 더 큰 지위와 더 큰 번영을 얻게 됩니다. 조금 나중에.

무역 길드로 유명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무역 길드에 참여한다는 것은 당신의 상업과 관련된 무역 길드의 사회적, 종교적 생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의 사회적, 종교적 생활. 대부분의 길드에는 수호신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번영과 성공을 책임지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드 가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신들에게 빛진 감사의 빛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로마제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순응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신호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들에 대한 배은망덕의 극단적인 표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공을 책임진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두아디라는 황제 숭배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두아디라라는 마을이나 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고 이교 숭배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도 수용하려는 유혹을 받는 상황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나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내가 처음보다 지금 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 여자가 가르쳐서 내 종들을 미혹하여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를 회개할 시간을 주었지만 그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고난의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와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리라. 내가 그 자녀를 죽이면 모든 교회가 나는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제 내가 두아디라에 남아 있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교훈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른바 사단의 깊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뜻을 행하는 그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는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는 그들을 질그릇처럼 부숴버릴 것이다.

아버지 에게서 권위를 받은 것처럼, 나도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이전의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두아디라도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모두 받았지만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도 받고 정죄도 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1장에서 그에게 부여된 특징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는 1장에서 9절 시작 부분에 있는 인자에 대한 묘사와 같이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진 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주된 태도가 다시 재판관의 태도임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불처럼 타는 눈을 가진 자는 23절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시는지 주목하십시오. 내가 그 자녀를 죽이면 모든 교회가 나는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불타오르는 눈으로 그의 교회와 그의 백성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보시고 그들의 참된 상태를 평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가 그들을 칭찬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자세는 주로 그들의 존재를 꿰뚫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볼 수 있는 불로 타오르는 눈으로 오시는 분이실 것이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다시 심판하러 그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지 오셔서 내가 너희를 멸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끈질기게 하여 그들의 길을 회개하고 종말론적인 축복에 들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상속받으십시오. 이제 칭찬은 그들의 선행을 칭찬한다는 것이고, 당신의 이후의 업적이 첫 작품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와 순종과 신실한 증거는 처음보다 증가하였고 지금은 훨씬 더 커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칭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 예수께서 바로 정죄로 전환하시고 이 장의 정죄가 버가모에서의 정죄와 매우 유사 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방 환경과 타협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고 이방 환경과 타협해도 괜찮고 신을 숭배해도 괜찮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신실한 증언을 타협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를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음행을 행하거나 우상 숭배의 결과로 영적 간음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서 이 가르침을 용납했기 때문에 교회를 정죄하시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십니다. 요한이 이 섹션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때때로 요한이 이것을 분명히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요한과 예수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나는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 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다른 때에는 요한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기 위해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는 1장에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요한은 구약성서의 이미지를 다시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시 구약성서 열왕기상 16장과 21장에서 이 내용을 연습니다.

우리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에 대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신 바알을 숭배하도록 이끈 사람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발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요한은 이제 그 이야기를 사용하여 교회가 비슷한 위협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다시 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과 지금의 새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들이 미혹되고 유혹을 받고, 구약에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연속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한 번 이방 환경과 문화에 순응하고 이방 신을 숭배하고 황제도 숭배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가르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현재 두아디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적합한 규범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세벨이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집단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자가 여기서 그녀를 묘사하는 방식은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가르치거나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속이는 특정 여성 선지자나 여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아디라에서 우상 숭배 행위에 참여함으로써입니다. 이세벨이 하는 일과 그녀가 여기에서 어떻게 묘사하는지가 20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녀가 가르침으로써 내 종들을 성적 부도덕에 빠지게 하거나 기만합니다.

흥미롭게도, 속이는 개념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다시 등장하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12장의 사탄과 온 천하를 미혹하고 미혹하는 죄를 범한 두 짐승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3장에서는 둘째 짐승이 그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사탄이 아담을 속인 창세기 3장 이래로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세벨이 속이거나 여선지자가 된다는 개념이 두아디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방식으로 이해된다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과 12장, 13장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탄과 두 짐승은 온 천하를 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속인 자들입니다. 이제 요한은 좀 더 직설적인 표현으로 이 여선지자 이세벨이 교회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이 요한이 이미 2장부터 3장까지 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좀 더 묵시적인 견해 또는 묵시적인 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두아디라 메시지의 22절과 23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그 음행을 회개할 시간을 주었으나 그가 원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를 고난의 침상에 던지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세벨과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상징적인 이미지에 주목하세요. 그는 말 그대로 그녀를 침대에 던지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음과 음행, 부도덕한 언어의 사용을 주목하세요. 아마도 다시 주로 은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충실과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 구절에 묘사된 내용이 4장부터 22장까지 더 자세히 설명할 다양한 재앙과 다양한 심판을 다시 한 번 예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요한은 이세벨과 그녀의 가르침에 참여하고 그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녀의 가르침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1장에서 볼 수 있는 재앙과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교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4부터 22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또한, 이 글을 읽으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그룹이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당신이 이세벨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녀의 자녀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그와 간음한 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보는 한 가지 방법은 저자가 여기서 단순히 두 그룹을 옆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그 자녀들은 단순히 이 거짓 가르침을

조장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속여 간음과 우상 숭배를 범하게 하려는 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간음하는 자들은 그 여자를 따를 위험에 처해 있는 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림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것은 버가모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2장과 3장의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들의 신실한 증언을 수용하거나 타협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가르침을 허용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황제 숭배를 통해 우상 숭배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한 26절 시작 부분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거나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상 숭배 활동과 타협할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그들이 이기고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이교 세계와 환경에 속지 않고 실제로 그것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27절에서 구약성경과 시편 2장을 인용하여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려 질그릇 같이 깨뜨릴 것이라고 뒷받침합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본문입니다. 나중에 12장에서 우리는 12장을 실제로 과거 사건을 언급하는 구절의 예로 간략하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임신한 여자와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용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급속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아들은 시편 2장에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자, 철장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고 다스리는 분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도 승리한다면 그 통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이러니는 다소 흥미롭습니다.

열방과 이교 환경에 미혹당하고 미혹당하는 대신에 이기면 실제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나라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는 적들을 물리치는 예수의 패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회개하라는 부르심으로, 회개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경고로, 로마의 세력에 속지 말라는 부르심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4장부터 22장까지의 나머지 부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주로 경고로 읽을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타협한다면 나머지 장에 나오는 심판과 재앙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기면 그들은 다시 종말론적 구원,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음 교회,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교회에 전하는 말씀을 기록하는 교회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사데 교회입니다. 순환 경로의 다음 도시.

우리가 방금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본 곳은 두아디라 성의 남동쪽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과거에 사데는 중요한 군사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Sardis는 거의 군사력과 군사력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또한 무역과 상업을 통해 얻은 막대한 부의 도시이기도 했다.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도시 역사의 한 지점인 안티오코스 3세가 요한이 이 도시에 대해 연설하기 몇 년 전, 안티오코스 3세라는 왕이 실제로 크레타인이 절벽을 내려갔을 때 매우 중요한 패배로 도시를 격파했다는 것입니다. 요새로 유명했습니다. 크레타인이 실제로 도시의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절벽을

내려갔을 때 경비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을 발견하여 도시로 들어갈 수 있었고 도시는 아주 적은 패배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도시는 군사적 거점으로 알려졌고 일종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다시 서기 17년경, 요한이 이곳 교회에 연설하기 몇 년 전, 사데 시와 사데 부근에서 보게 될 다른 두 도시가 심신을 약화시키는 지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도움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우리는 곧 다른 도시가 실제로 지진을 겪었지만 그 자체의 부와 시민들의 부에 의해 재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아우구스투스가 서기 17년에 지진을 겪은 후 도시를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곳은 또한 수많은 이교도 신들의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곳은 상당히 많은 유대인 인구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3장 1절부터 사데 교회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광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받았고 들은 것을 생각하고 순종하여 회개하라.

그러나 만일 네가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어느 때에 네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데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을 것입니다. 그들은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들과 같아 흰옷을 입을 것이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므로 사데 교회의 문제는 분명히 그들이 살아 있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곱 영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의 손에 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 가운데 계시며 그들의 상황을 평가하고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는 그들이 살아 있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죽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즉, 3장에서 사데에 대한 평가는 주로 부정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자는 여러분 가운데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우상 숭배와 이교 환경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충실한 증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들은 타협을 거부했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교회는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 있다는 평판을 받았지만 동시에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가 영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가 하나님의 일곱 영을 소유한 자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역시 1장의 설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아마도 하나님의 영의 총만함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곱은 완전함과 완성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곱 영을 별개의 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총만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의미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평가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죽은 자로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데 필요한 것을 정확히 쥐고 있는 자로 오십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자신의 평가와 평가에 따르면 그들은 다시 죽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세속 문화에서 증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충실한 증거를 유지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들은 다른 교회들이 직면했던 것과 같은 압력, 즉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에 참여하려는 유혹, 이교 신들과 황제를 숭배하려는 유혹에 직면하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예배, 사데의

삶의 특정 측면에 참여하려는 유혹으로 인해 다른 교회들도 직면했던 것처럼 그들을 우상 숭배 활동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압력을 피하기 위해 이제 그들은 서머나와 나중에 필라델피아와 같은 교회가 타협을 거부하고 충실한 증언을 유지했기 때문에 직면하고 있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기꺼이 타협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그들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쩐지 주변 환경에 순응하고 타협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이르렀을 정도로 순응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 있다는 평판을 가지고 일관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고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어느 때에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흥미롭게도 저자가 구약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아마도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본문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사용하는 예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재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감람산 담화 또는 소위 종말론적 담화라고 불리는 예수의 비유 중 하나에서 그는 자신이 밤에 도적에게 오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자신의 백성인 제자들에게 깨어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십니다. 따라서 아마도 여기 저자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정확한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그 말씀에 접근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데 교회에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가르침을 인용하시며,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 즉 살아 있다는 평판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교회에 경고하십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죽었고 아마도 그들은 관심과 박해를 끌지 않기 위해 Sardis에서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깨어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내는 영을 가진 자 대신에,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의 재림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아마도 나중에 19장과 20장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언급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를 들어 19장에서 전쟁을 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데교회에서 그들을 이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타협을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특히 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신실한 증언을 유지하고, 명성과 살아 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사데 교회가 이기는 경우 어떤 약속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관한 Dr. Dave Mathewson의 강의입니다. 세션 6, 일곱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